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학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태 및 해결방안

중국 길림대학교 교수 윤윤진

서론

목하 중국의 180 여개 대학교들에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① 중한 수교와 한류의 열풍을 타고 번지고 있는 이러한 한국어 붐은 중국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보급과 제고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문학의 경우, 한국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개설해야 할 한국문학관련과정, 한국문학교육의 진행방식, 한국문학교육관련텍스트선정, 한국문학교육의 심도와 정도문제, 목전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학교육에 존재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대학교들에 설치된 한국학과들에서의 한국문학교과과정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된 이래 줄곧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사실은 이론적인 조명과 관심을 받아야 했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척되었어야 했다. 이면에서 서울대 윤여탁교수를 비롯하여 김정우, 문복희 등 한국학자들의 연구는 자못 돋보이는 것이다.^② 그러나 중국국내로 한정시켜 볼 때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이 문제는 이론, 실천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교육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필자는 상기한 문제 중, 학생양성목적에 따른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을 비롯하여 그 교수범위, 정도, 수준과 거기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한정시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한국문학에서의 교수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론

1.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미 6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③ 사실 1992 년 중한 수교 후에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나 그 시원과 바탕은 여전히 50 년대부터 진행된 한국어교육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연변대학이나 베이징대학을 비롯하여 중앙민족대, 낙양외대의 한국어 교육이 그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말하면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그 시작부터 차원이 높고 다른 나라들에 비할 수 없는 탄탄한 토대를 바탕으로 그 서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 기간 내에 한국어 학과가 급발전하면서 일부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아래에서 논하게 되는 한국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한국문학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가운데서 제기된 문제의 하나이다. 필자는 다년간의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면서 한국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아래에 몇 개 측면으로 나누어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한국어학과 역사로 보아 한국어 학과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목하 중국에서는 한국어 학과를 외국언어문학학과로 분류시키고 있으나 영어나 일본어, 러시아어와는 달리 그 하위분류에 귀속시키고 있다.^④ 그런데 중국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1949년 건국이후로부터 줄곧 한국어(조선어)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높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증거로 되는 동시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소통을 위한 역군양성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전통과 역사로 보아 중국에서는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학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교학방법을 채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 교수들은 중국이나 조선, 또는 한국에서 모두 체계적인 언어문학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교육을 주도로 하는 한편, 문학교육을 비롯한 기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수준을 겸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제고된 상황에서 문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필자는 인정한다. 문학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문학상식이나 문학적인 지식을 전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어 학과의 경우가 그러한데 문학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언어습득을 비롯하여 문학지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문화의 이해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꾀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학을 통해 그 나라 언어는 물론 그 나라 문화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지적 성숙도, 연령, 정서적 이해, 언어적 능력^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학을 접수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문학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명지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으로 보아도 한국문학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10여년 전, 몇 개 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교과서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실로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학과의 이러한 발전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한국어학과의 발전을 고려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전 시기보다 더 높은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한국어교육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근자에 우리가 말하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은 흔히 한국어학과의 양적인 증강이나 한국어학과학생의 양적증가에 한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한 학과의 발전도 그러하겠지만 언어교육은 양적인 수자로만 그 고저를 평가할 수 없다. 언어교육의 고저는 그 양적인 증가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양성의 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또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일개 언어교육의 고저가 양적인 수량에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있다고 상정할 때,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언어교육이 단순한 언어교육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그 언어교육의 효과를 탄탄히 하고 또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문학교육도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한국어 고급인재 양성목표로 보아도 한국문학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목하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고저척도는 양적인 발전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며 따라서 우리의 언어교육목적도 언어를 교재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관련 고차원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인재양성목표라면 한국어학과의 교육이 단순한 언어교육이라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사실 지금 우리의 한국어교육은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중국 내 대학교들에서 한국관련 대학원생을 양성하는 학교도 적지 않은데^⑥ 이것은 상황들을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목표가 외국기업이나 중외합자기업을 위해 역군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고급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단순한 언어소통의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을 알고 한국문화를 알며 한국문화를 중국에 소개할 수 있고 중국문화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으며 한국관련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우리의 양성 목표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이나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지금 일부 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학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과 학생들의 인문수양의 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보아도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학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미래학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 발전은 학문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변되는 학문의 전문화와 품위 있는 인문수양의 구비를 기본으로 한 인격의 소유자로 개괄할 수 있다. 전문지식을 소유하면서 고품격의 인격을 구비한 인간,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사회의 미래 발전은 꼭 이러한 인재들을 필요로 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최저의 인격조차 구비하지 못한 인간은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문명의 척도는 전문적인 지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수양의 고저에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할진대 한국어학과에서 양성하는 학생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어 사용자로서 반드시 품위 있는 인격적인 수양도 쌓아야 할 것이다. 인격의 양성은 여러 면의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겠지만 문학수양과 文化涵養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한국문학을 비롯한 기타 교육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다섯째, 중국의 기타 외국어학과와의 대조 속에서 보아도 한국문학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중국에서 한국어 학과는 영어나 일본어, 러시아어 등등 학과에 비해 하위분류에 속해 있으며 언어분류상으로도

비통용어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 분류상의 편의와 해당 언어의 국제적인 사용빈도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으로 그 교육을 통용어나 기타 상위분류에 있는 학과보다 차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학과가 비록 통용어종이 아니더라도 외국어학부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교육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년간 쌓아온 중국에서의 외국어교육의 패턴에 따라 교육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기타 여러 외국어학과에서 특히는 상위분류에 속해 있는 외국어 학과에서는 대학원 과정은 물론 4년제 본과 과정에 모두 상대국문학교육이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아도 한국어학과에서는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2. 목차 중국 한국어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문학교육상황과 그 문제점

지금 중국의 한국어학과에는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통일적인 敎學大綱이 없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한국문학교육이 그 어떠한 표준과 요구에 의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자기의 상황에 근거하여 편의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물론 학교에 교학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문학과정도 한 학기나 두 학기, 또는 세 학기 정도 배정되어 있지만 뚜렷한 교육목적이 없이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문학교수진의 결핍,^⑦ 교육자들의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적절한 교과서와 교과참고서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교육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⑧ 구체적인 상황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겠다.^⑨

첫째는 언어제고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이다, 이것은 목전 중국의 한국어학과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하나인데 중국의 많은 한국어학과들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목적을 언어소통에 두고 있기에 기타 모든 학과목들은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 지고 있다. 물론 이제 뒤에서도 논하겠지만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과 교육목적 등에 따라 한국문학을 통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문학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과의 학과적 성격으로 보아도 이것은 당연한 교학방법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한국어 학과의 교육목표가 단순한 언어소통능력의 향상에만 있지 않고 더 높은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상정할 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인재양성 목표를 고차원에서의 한국어인재양성에 둔 학교들의 경우, 한국문학교육의 목적을 언어제고나 언어습득이라는 차원에 두면 사실 바람직하지 교육방법이 아니다.

문학교육의 목적은 언어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학생양성목표도 한국어를 구사하고 언어소통에 아무런 저애가 없는 학생만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어소통능력도 뛰어나지만 그 외의 기타 수양과 지식을 겸비한 복합성적인 인재양성이며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도 이러한 다면성적인 인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문학교육의 목적을 단순한 언어교육의 차원에 두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는 일반적인 교양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이다. 이것도 상당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한국어학과 학생으로서 한국문학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이 정도의 한국문학관련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문학교육은 상식적인 보급이라는 전제를 떠날 수 없으며 참다운 문학교육은 운운할 수도 없는 것이며 흔히 몇몇 문학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주지하다시피 문학도 일개 학문이다. 거기에는 문학자체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문학으로서의 법칙성이 있다. 이러한 법칙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소박한 염원에 따라 교수를 조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문학 강의가 될 수 없으며, 작가, 작품의 간략한 소개에 지나지 않는 문학 강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수 목적을 단순한 일반적인 문학교양에 둔다고 하여도 이 경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필자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진정한 문학적인 수양은 중국문학을 통해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의 성숙도, 문학작품에 대한 認知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들이 한국문학작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주요하게 언어장애에서 오는 것이며 한국인들의 감정, 정서, 표현능력 등등에 대한 몰이해를 비롯하여 작품 배경, 작가 생활 배경, 그 작품을 창작할 때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 등등에 대한 不知 등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교수를 진행하기에 생각한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우는 문학사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인데 이 경우는 3학년정도에 한국문학사를 한 강좌정도 배정하여 한국문학의 발전 역사를 간략하여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목적은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의 흐름을 상식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또 문학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학생들에게 문학사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국어과 4학년생이 한국문학에 대한 최저의 상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학방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의 강의 법칙에 어긋나게 강의를 하는 경우다. 교학방식의 문제는 강사 자신의 문제로, 필요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강사의 인식문제이다. 사실 문학의 역사에는 일정한 발전법칙이 있으며 법칙성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강사가 이러한 법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무책임하게 강의를 한다면 자연 그러한 강의가 어렵게 들려올 수밖에 없으며 청강자들도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의는 문학의 발전법칙을 문학의 지식에 알맞게 강의를 조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사실 다른 강의도 그러하겠지만 문학 강의는 강사의 상당한 문학수양을 기본으로 한다. 강사 자체가 문학수양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그 문학에 대한 문학적인 이해가 불충분하다면 그런 강의는

재미있을 리가 없다. 이 경우는 강사가 하루 속히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로 될 것이다.

넷째는 문학수준이나 문학적인 수양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학생들의 상당한 문학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면 셋째의 경우는 강사의 문제이고 이 넷째의 경우는 학생의 경우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한국어학과에는 문학수양을 제고하기 위한 문학기론을 비롯한 학과목들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청강자들의 문학수양은 개인적인 취미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문학지식이나 상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중국에서 문학관련 대학생들의 학위논문이나 기타의 경우를 보면 이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¹⁰ 저희 대학에서 외국어학과를 졸업하고 문학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문학적인 전문지식과 문학상식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대학교 본과에서 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할 수도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문학적인 상식을 이입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는 문학연구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인데 이것은 본격적인 문학관련 인재를 양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재양성을 다면적인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 보아도 우리의 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 가운데는 문학교육에 종사할 사람도 있으며 대학원에 들어가 문학공부를 계속하고 앞으로 문학교육에 종사할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적당히 문학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의 관건적인 문제는 문학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주로 이 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진행방안을 검토보고자 한다.

3. 학생양성 목표에 따른 학교별 한국문학교수진행방안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교수를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로 진행해야 바람직할 것이며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역시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측면을 위주로 필자의 건의를 제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전히 학생양성 목표에 따른 한국문학 교수방안이다. 말하자면 학생양성목표에 따라 한국문학교육을 어느 정도로, 어떤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기초 상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첫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

학생양성 목표가 언어소통이 위주이고 문학교육 역시 언어수준의 제고에 있다고 할 때, 이 교육목표에 따라 한국문학학과정과 교수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필자는 문학사보다 문학작품강독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학작품강독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라 사적인

발전이나 작가소개보다는 작품위주로 작품에 나오는 새 단어, 새로운 언어표현방식, 관용 표현, 문형 등등에 역점을 두고 강의하는 것이 좋으며 많은 양의 작품보다는 적당한 양의 작품들을 선정하되¹¹ 그 선정에 있어서도 고전보다는 현대, 또는 당대의 작품으로 방언이 적고 독특한 표현방식이 적은 서사문학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그 구절을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더 깊고 넓은 전개나 분석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용어나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인상을 깊게 하거나 그러한 구절들을 모방하여 새로운 구절을 만들어 보는 연습 등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교수방법이 아닐까 하며 관용표현이나 문형들은 별도로 취급하여 수업을 조직할 수도 있다. 윤여탁은 이 부분에 대하여 “기초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어휘나 문형이 쓰인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장르로 보면 수필이나 쉬운 소설,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시, 노랫말 등이 활용될 수 있다”¹²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이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이 기초 단계에 많은 도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둘째, 일반적인 교양을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

이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어학과 학생으로서 한국문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이 정도의 한국문학관련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구체적인 작품보다는 작가, 작품 중심으로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작가들을 선정하여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³ 역시 문학사보다는 문학사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는 작가, 작품들을 하되 양적으로 너무 많은 작가나 작품들을 선정할 필요가 없이 적당한 선에서 선정하여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고전의 경우, 신화에서는 <단군신화>, 판소리소설에서는 <춘향전>의 식으로 한 장르에서 하나씩 하거나 중요한 장르를 선택하여 거기에서 한 작품을 선정하는 식으로, 현대의 경우는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식으로 그들의 대표성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선에서 강의를 조직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물론 이 경우, 문학사나 작가,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 문학사들에서 공동으로 거론되는 작가와 작품 중에서 필요한 양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강의방식에 있어서는 작가, 작품을 소개한 후, 개작으로 된 드라마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식을 채용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익숙한 중국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과 비교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셋째, 문학사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

이 경우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문학의 발전역사와 문학사 지식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체로 두 가지 면으로부터 한국문학교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문학의 발전과 연혁의 역사를 이야기하되 한국문학의 역사적 변화의 내적인 동력과 외적인 원인, 그리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문학발전의 필연성과 법칙성적인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문학의 역사적인 변화와 변혁 가운데서 중대한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그러한 작가와 작품이 왜 이 변혁가운데서 중대한 작용을 하였다고 하는가 하는 문학의 법칙성적인 문제를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문학 장르적인 측면이나 한국문학의 발전 역사를 몇 개 시기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관건은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의 내적인 발전법칙과 그 법칙에 따른 역사적인 변화를 인식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시기별 중요한 작가와 작품이 왜, 어떻게 그 시기 문학을 변혁시켰는가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교수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문학의 역사를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보이면서 매 시기별 유행한 문학 장르, 변화발전가운데서 볼 수 있는 법칙성적인 문제, 그 시기에 활약했거나 그 시기 문학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 등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발전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문학의 발전 시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그것은 역사의 큰 흐름에 따라 몇 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매 시기에 그 시기에 부합되는 장르의 출현에 대한 역사적인 필연성도 함께 이야기해 주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필자는 인정한다.

넷째, 문학수준이나 문학적인 수양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

이 경우는 본격적인 문학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문학 감상 능력과 문학작품을 읽는 방식의 문제이다. 문학수준이나 문학수양의 제고는 일정한 문학 작품 감상 능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정한 양의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간단한 문학기론에 따라 작품 읽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감상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어학과의 특정상 문학기론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傳授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기식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보다는 작품에 따라 관련문학기식을 간략하여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 읽는 방법을 터득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설 한편, 또는 시 한수를 선정하였다 할 때, 소설이나 시에 대한 가장 필요한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중점적으로는 작품의 읽기를 시킨다. 읽기를 통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능력을 제고시키며 또 그 다음에 선택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수업 방식 상에서는 학생들이 숙지하는 중국의 문학작품을 동시에 선정하여 비교적 수업 조직하는 것도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중국의 고전명작이나 당시, 송사에 대해서 익숙한 편이다. 따라서 그러한 작품과 한국문학작품을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예상 이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여기에서의 비교는 설명을 위한 단순 비교지 비교문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교여서는 안 되며 문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학문적인 비교보다는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학지식을 부여하는 비교여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문학연구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경우

이 경우는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수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대학원생 가운데는 언어학이나 번역전공 외에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졸업 후,

한국문학연구, 또는 중한 문학비교연구를 하게 될 터인데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문성적인 문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이론을 비롯하여 비교문학이론, 문학연구방법론, 중한고전문학비교, 중한현대문학비교 등등 기타 외국어학과 혹은 중국의 조선언어문학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과 거의 비슷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미 20 여명 문학연구생을 양성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여타 대학교들에서 문학수업 또는 기타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의 목적은 앞으로 문학을 전공할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수업은 중국의 중문학과 혹은 연변대학교의 조문학과의 방식을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할 필요성과 더불어 목전 중국의 한국어학과의 한국문학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실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교육을 진행해야 할 당위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 획일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학생 양성 목표와 상관이 없이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우리는 본 학교의 학생양성목표가 가장 중요한 만큼 거기에 따라 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하며 문학수업도 그 양이나, 정도, 수준 등등을 포함하여 거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의 교육이 활기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도 필요한 학생을 양성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①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의 의하면 목전 중국 경내에 3 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183 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윤여탁은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문학교육의 목표와 정전>,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등 논문에서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의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에 있어서 계시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 외 김정수, 문복희 등 학자들과 중국의 김영옥 등 학자들도 이면에서 여러 편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모두 교수경험과 체험에 의한 연구임으로 모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③ 중국 대륙에서는 공화국이 성립된 1949 년부터 연변대학에서 조선어학부를 설립하고 한국어교육을 진행했고 미구에 베이징대학에서도 한국어학과생을 모집하고 인재를 양성했다.

④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언어문학을 1 급학과로 그 하위 분류로 영어영문학, 러어러문학, 일어일문학, 독어독문학, 프랑스언어문학, 스페인언어문학, 아랍언어문학 등으로 분류하여 그것을 2 급학과로, 한국언어문학은 아시아아프리카언어문학의 하위분류로 3 급학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⑤ 윤여탁은 라자르(Lazar)가 영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때, 텍스트를 선정하면서 고려한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는데 그 중 학생들의 유형이란 부분은 나이, 지적성숙도, 정서적 이해, 관심/취미, 문화적 배경, 언어적 능력, 문학적 배경 등이 열거되고 있다. 윤여탁

<한국어 문학교육의 목표와 정진>참조,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2008 년도 연례 학술논문 발표대회 논문집>(2008 년 7 월 8-10 일)

- ⑥ 지금 중국 경내에서 연변대학을 비롯하여 베이징대학, 복단대학, 길림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낙양외국어학원 등 대학교들에서 한국학 관련 박사연구생을 양성하고 있다.
- ⑦ 지금 중국 내 일부 대학교에는 문학전공자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 허다한 경우는 임의적으로 편의에 따라 문장을 선정하여 작가소개, 작품의 주제, 사상, 인물, 예술표현 등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 ⑧ 윤여탁은 한국문학교육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 선정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 한국의 사회 문화 학습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 한국 문학 학습을 위한 한국 문학 작품 등 3 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국 문학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텍스트 선정에 상당한 계시를 주고 있다. 윤여탁 위의 글 참조.
- ⑨ 지금 중국에는 한국문학교육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것은 본고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⑩ 지금 외국어학과를 졸업하고 문학원 대학원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문학적인 전문지식과 상식적인 문학지식의 결핍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1 <한국현대문학작품선>으로 말하면 김동인의 <배따라기>나 최서해의 <탈출기>,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 현진건의 <인력거군>,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외 고전 이야기나 현대 수필 따위도 좋은 텍스트로 될 수 있다.
- 12 윤여탁 우에 글.
- 13 고전의 경우는 단군신화, <춘향전> 이외 <홍길동전>이나 시조 따위가 적절할 것 같고 현대의 경우는 최남선의 시나 김소월, 한용운, 윤동주의 시, 현진건의 소설, 이기영의 소설, 김유정의 소설도 좋을 듯싶다.